

## 오직 '모른다'는 마음으로...

| 앤 밴크로프트 | 박규태 옮김 |

이 글은 송산선사와의 대담을 발췌한 것입니다. 모든 앞이 개념임을, 그 개념을 넘어 '모름'을 견지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바른 이해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편 집자 주).



제자 선禪이 무엇입니까?

승산 자네는 무엇인가?

제자 …….

승산 알 것 같은가?

제자 모르겠습니다.

승산 모른다는 마음이 바로 자네일세. 선禪은 자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지.

제자 그게 선禪의 모두입니까?

승산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가?

제자 제 말은 선사禪師라면 어떤 궁극적인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선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뜻입니다.

승산 무릇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네. 자네는 무엇을 이  
해하고 있는가? 내게 보여주게!

제자 …….

승산 좋다. 그럼 하나에 둘을 더하면 얼마인가?

제자 셋입니다.

승산 바로 맞힌 것 같군. 그럼 하늘은 무슨 색인가?

제자 푸른색입니다.

승산 좋았어. 진리란 아주 간단한 것이지. 그렇지? 그러나 자네의 마  
음은 복잡해. 자네는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러나 자네는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제자 그게 뭘니까?

승산 하나에 둘을 더하면 영뽕이지.

제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승산 누가 나에게 사과를 한 개 준다고 해 보자. 내가 그걸 먹었더니 그가 나에게 사과를 두 개 더 주었지. 그것들도 먹어버렸더니, 사과가 죄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 하나 더하기 둘은 영이지.

제자 흐~음.

승산 이걸 알아야 하네. 자네가 태어나기 전에는 자네도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제 자네는 하나일세. 미래에 자네도 죽을 터인데 그런게 되면 다시 영이 되는 거지.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와 같네. 빈 것썩에서 나와서 빈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영霧은 하나와 같고, 하나는 영과 같은 것이지.

제자 알겠습니다.

승산 학교에서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고 가르치지. 우리 선원禪院에서는 초심자에게 하나 더하기 둘은 영이라고 가르치네. 어느 게 맞는가?

제자 둘 다 맞습니다.

승산 ‘둘 다’라고 했나? 나는 ‘둘 다 아니’라고 하지.

제자 어째서 그렇죠?

승산 자네가 말한 것처럼 ‘둘 다’ 맞는다면 우주선宇宙船이 어떻게 달에 갈 수 있겠나? 하나 더하기 둘이 셋이 될 때에만 우주선은 달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 더하기 둘이 영이라면 우주선은 날아가는 도중에 사라질 게야. 그러니 ‘둘 다 아니’라는 말이 옳은 게지.

제자 그럼 무엇이 맞는 대답이 되는 거지요?

승산 ‘둘 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고 하면 자네가 난처해지겠지. 그리고 ‘둘 다 아니’라는 게 틀리다고 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지겠지? ‘빈 것은 형식’을 말하지. 이것은 하나는 영과 같고, 영은 하나

와 같다는 걸 의미하네. 그런데 누가 형식色을 만들지? 누가 빈 것솨을 만들지? 형식과 빈 것은 둘 다 개념이야. 너의 생각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말했지.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기 전에는 자네도 없고 나도 없고, 형식도 빈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형식도 없고 빈 것도 없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지. 생각하기 전 진짜 비어 있을 때 자네는 ‘맑은 마음’을 지니는 거야. 만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형식은 형식이고, 빈 것은 빈 것이지色卽是空空卽是色.

제자 글썄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승산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부터가 잘못이야. 곧장 앞으로만 가면서 모른다는 마음을 간직하게. 그러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게야.

제자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승산 깨달음이란 하나의 명사에 지나지 않는다네. 자네가 깨닫게 되어야 깨달음이라는 게 있게 되지. 그러나 깨달음이 존재하면 무지라는 것도 존재하게 돼. 선과 악, 옳고 그름, 깨달음과 무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반대되는 것들이지. 모든 상반되는 것들은 바로 자네의 생각이란 말일세. 진리는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절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만들면 자넨 무언가를 얻을 게야. 그러나 자네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자네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걸세.

제자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로 명사에 지나지 않습니까? 선사禪師는 선사가 되기 위해 깨달음의 경험에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승산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는 얻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던가? 깨달음이 얻어지거나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닐세.

제자 그러면 누구나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까?

승산 얻지 않는다는 말을 아는가?

제자 모르겠습니다.

승산 얻지 않는 게 얻는 것이라네. 자네는 얻지 않는 것을 얻어야 하네. 그러면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뭘 얻어야 할 게 있다는 말인가?

제자 빈 것솨을 말합니까?

승산 진짜 빈 것 속에는 명사도 형식도 없다네. 그러므로 얻을 게 없다는 말이네. 자네가 ‘나는 정말 빈 것솨을 얻었다거나 도달했다’고 말한다면 잘못 말하는 것일세.

제자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한다는 말이죠?

승산 우주는 언제나 진짜 빈 것이야. 자네는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게.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네.

제자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승산 내가 말하지 않던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제자 좀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승산 좋다 자넨 자네 눈을 볼 수 있는가?

제자 거울로 보면 볼 수 있지요.

승산 그건 자네 눈이 아니야. 그건 눈의 영상일 뿐이야. 자네 눈은 자네 눈을 볼 수가 없네. 자네가 눈을 보려고 하는 게 이미 잘못이

야. 자네가 자네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부터가 잘못이란 말이야.  
제자 하지만 선사님도 사미승 때 실제로 깨달음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산 자, 우리 앞에 꿀과 설탕과 바나나가 있다고 치자. 이것들은 모두 달지. 자네는 꿀의 단맛과 설탕의 단맛 그리고 바나나의 단맛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겠나?

제자 흐~음, 모르겠습니다.

승산 단맛은 조금씩 다 다르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나?

제자 모르겠습니다.

승산 그러나 자넨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입을 벌리십시오. 이견 꿀이고, 이견 설탕이고, 요건 바나나입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자네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려면 자네는 내가 꼬집어주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하네. 나는 이미 자네 마음에 깨달음을 집어 넣었네.

제자 선사님께서서는 앞에서 ‘맑은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승산 우리는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네. 첫째는 집착하는 마음인데 마음을 잃는 것이라고도 부르네. 두 번째는 한마음一心을 간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맑은 마음이지. 예를 들면 자네가 기차 정류장에서 있을 때 커다란 경적 소리가 들린다면 자네는 깜짝 놀라 정신이 없어지겠지. 또 자네가 사흘 동안 굶었는데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준다면 아무 생각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치우겠지. 먹는 것만이 있게 되겠지. 또 자네가 성행위를 한다면 좋은 기분이 들어 상대방에게 푹 빠지겠지. 이것은 자네의 마음을 잃는 것이지만, 성행위를 멈추었을 때 자네의 작

고 이기적인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단 말이네. 이것들이 집착하는 행위들이라네. 그것들은 욕망에서 생겨 고통으로 끝난다네.

제자 ‘한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산 누가 진언眞言, mantra을 암송할 때는 진언만이 있게 되는 것이지.

제자 그러면 ‘맑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승산 ‘맑은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지. 빨간색을 비추면 거울은 빨개지고, 흰색을 비추면 흰색이 되지. 모든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나 역시 행복하게 되지. 만약 자네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맑은 마음인 것이야. 그래서 욕망에 빼앗긴 마음은 작은 마음이고, 큰 마음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인 것이야.

제자 제겐 아직도 분명하지 않군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승산 그러지. 한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들이 마음을 잃고 아주아주 행복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총을 든 강도가 침입하여 “돈을 내놔”라고 했다면, 저들의 행복감은 싹 가시고 숙연해지겠지. “살려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한다면 이것은 작은 마음인 게야. 그런 마음은 항상 변하며 외부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 변하지.

그러나 진언을 외우던 자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지. 거기에는 안도 밖도 없고 오직 비어 있을 따름이야. 강도가 나타나 “돈을 내놔라” 해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직 “옴마

니 반메흠”만 있을 뿐이지.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릴 테다”고 하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네. 이미 거기에는 생과 사도 없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연민의 정이 넘치는 큰 거울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지. 강도가 나타나 “돈 내놔!” 하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오”라고 말하지. “있는 대로 몽땅 다 내놔!” 하면, “그러지죠” 하고 말하며 그가 가진 돈을 몽땅 내어준다네. 그는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몹시 슬프다네. 그러고는 “어쩌자고 이러한 일을 하나,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될 터인데” 하고 염려해주시. 강도는 그를 쳐다보며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의 얼굴에 어머니와 같은 연민의 정이 흐름을 알지. 그래서 오히려 강도가 당황하게 되지.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지.

‘맑은 마음’이란,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인 게야. 그것은 완전한 자유인 셈이지. 자네가 만약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런 사랑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자네는 고통을 느끼게 될 걸세. 자네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녀도 자네를 사랑했다고 하자. 자네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그녀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고 하면 자네의 사랑은 분노와 증오로 변하지 않겠나? 그러므로 작은 사랑은 언젠가 눈물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법일세. 큰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기쁨과 고통을 초월하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일세.

제자   선사님은 선사님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승산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지!

제자 심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수행법을 권하시려는지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 있는 선사님의 선 센터에서 선사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몇 시간씩 좌선坐禪을 한다던데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승산 명상을 한다는 건 중요하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어떻게 자네의 마음을 지키느냐 하는 데 있는 게야. 몸뚱어리만 앉아 있는 것이라면 필요치가 않아. 그것은 외적인 형식일 뿐이야. 정작 필요한 것은 마음이 자리를 정하여 앉는 것이라네. 진짜로 앉는다는 것은 일체의 생각을 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진짜 선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의미하네. 내가 자네에게 “자네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네는 알지를 못했지. 모른다는 것만이 있었지. 자네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같이 모른다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이것이 자동차 운전자의 선인 게야. 자네가 테니스를 하며 이러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이것은 테니스의 선이고, 자네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지닌다면 이것은 텔레비전 선인 게야. 자네는 언제 어디서나 모른다는 마음을 간직해야 하네. 이것이 진짜 선을 실행하는 것이지. 위대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구별하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말게. 자네가 만약 자네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아주 완전하게 밝아질 것이야.

제자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중요합니까?

승산 중요하고 말고.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수련하고 나서 이해하였노라 생각하고 자기가 큰 깨달음大覺을 얻은 보살이라고 생각

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러므로 위대한 선사를 찾아뵙고 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모두 개골창에 빠지게 되고 말지.

선종禪宗에는 많은 공안公案이 있지. 공안은 시험과 같은 것이고, 낚시바늘 같은 것이기도 하지. 만일 자네의 마음이 맑지 않으면 미끼 달린 바늘이 자네 마음의 연못에 던져져 자네의 온갖 상념을 끄집어내게 될 것이야. 그럼 자네는 낚시 바늘에 닿자마자 잡히고 말지. 그러나 자네가 진짜로 깨달았다면 자네 마음속에 700개의 낚시바늘이 던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걸세. 맑은 물에 낚시바늘을 던질지라도 걸려 나오는 것이란 맑은 물밖에 더 되겠나? 걸려드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을 거야.

제자 그러나 선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승산 그때에는 언제든지 내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은가?

제자 저들의 마음을 시험해볼 그러한 공안들이 있습니까?

승산 우리 선파에는 그들에게 시험해볼 공안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불타는 만물에는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셨지. 그런데 어떤 이가 조주趙州 선사께 ‘개도 불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선사는 아니라고 하셨지. 여기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을 묻는다네.

1. 불타는 ‘그렇다’ 했고 조주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가?
2. 조주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3. 내가 묻노니, 개도 불성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한 선승이 조주에게 “저는 지금 막 선사님의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조주께서 “아침밥은 먹었나?” 하고 말씀하셨지. 그 선승이 “네, 먹었습니다.” 하자 조주가 “그럼, 네 밥사발이나 닦으렴”하시더라. 그 선승은 갑자기 깨달았지. 이 선승이 얻은 게 무엇이야?

만일 자네가 이와 같은 공안에 답한 것을 이해하려고 들면 자네는 아마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똑바로 앞을 향해 가며 모른다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 해답은 스스로 드러날 것일세. 그리고 자네의 마음이 맑아지면 어떤 공안이든지 지체 없이 답할 수 있게 될 걸세.

제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산 천만에.

(끝) 

- 이 글은 『선이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앤 밴크로프트** Anne Bancroft | 영국 출신의 비종교학자. 동양 종교를 연구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과 작품 활동 등을 통해 불교가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Zen : Direct Pointing to Reality》, 《Weavers of Wisdom : Women Mystics of the Twentieth Century》 등 수많은 책들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저자 | **박규태**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동경대학에서 일본종교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정신의 풍경》, 《상대와 절대로서의 일본》,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히메까지》, 《일본의 신사》,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일본》 등이 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종교문화비평 편집위원장, 일본비평,

비교일본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선이란



저자 앤 밴크로프트 | 역자 박규태 | 출판사 평단문화사 | 정가 9,800원

선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진리를 실현하려는 대선사들의 심원한 해학과 기지에 담긴 선의 정신 탐구 『선이란』. '선'은 삶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려는 불교적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는 여섯 명의 위대한 선사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 선종 제6대조인 혜능, 선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스승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임제 등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여 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1장에서는 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와 문헌에 나타나는 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을 더하였다. 2장에서는 100여 컷의 관련 도판을 이용하여 앞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실례로 들어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 3장에서는 주제별로 선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이미지와 함께 쉽게 풀어낸다.